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¹⁾

좌동훈 부연구위원, quelpart@nypi.re.kr

요약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약 15.8%(4,700여명)를 차지하고 있음(통일부 홈페이지, 인출일: 2016. 11. 28). 현재 탈북 청소년의 수는 남한 아동·청소년 수에 비해 적지만 추후 탈북 청소년이 늘어날 가능성과 통일 이후 청소년 지원 정책까지 고려한다면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행정자료, 2016년초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2차 자료²⁾를 분석하고, 탈북 청소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탈북 청소년의 역량 수준과 영향 요인 등을 파악함. 탈북 청소년 전문가 의견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들에 관해 탈북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추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위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에 관해 수동적 존재, 온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 역량 등을 충분히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전담조직 및 역할분담, 법률개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기존 제도에서 개인·가족 지원, 초기 적응강화, 역량 진단도구개발 등을 제안함. 그리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서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또래 멘토링, 가족 지원 등을 제안함.

1) 본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를 발체·요약한 것임.

2) 여성가족부, 한국DMZ학회(2016), 탈북청소년 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29,830명(2016. 9월말 기준)이고 그중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700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15.8%를 차지하고 있음(통일부 홈페이지, 인출일: 2016. 11. 28).
 - 현재 탈북 청소년의 수는 남한 전체 아동·청소년 수에 비해 적으나 향후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 이후 청소년 지원 정책까지 확대 고려해야 함.
 -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탈북 청소년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탈북 청소년은 북한체제 속에서 개인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에 익숙하게 생활했었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사고, 행동 등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체제로 생활방식을 급격히 바꿔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 남한 사회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지나친 온정주의 시선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임.
 - 낮은 자존감은 위축된 모습과 자신의 삶에 관해 소극적 자세로 나타나며 탈북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 강점 등을 펼쳐보기도 전에 먼저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가진 역량 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 탈북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역량 등을 파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체계를 검토하도록 함.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남·북 청소년이 동등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결과

▶ 탈북 청소년 대상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조사 및 2차 자료 분석 결과

- 정부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탈북 청소년이 대부분 학령기임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부와 교육부에 비해 역할이 매우 작으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점에서 각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통해 기관간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각종 지원에 대한 욕구는 주로 학업, 진로, 진학 등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우선적인 것으로 나타남.
 - 탈북 청소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개발과 관련된 지원 욕구가 높음.
 -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함.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가능하나,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어릴 적 외상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며, 개별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국의 사례 고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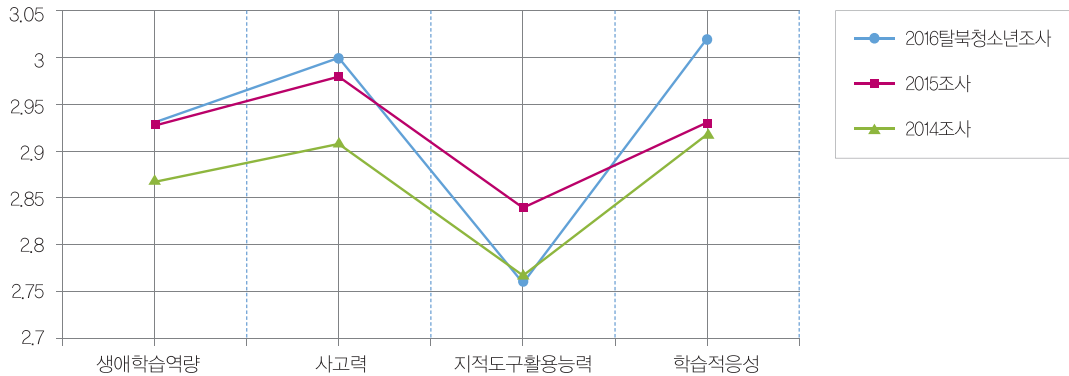
- 독일에서는 통일에 맞춰 동독과 서독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봄.
 - 아동·청소년지원법 정비를 통해 예방지향적 관점으로 전환
 - 매년 연구를 통한 동독 청소년의 통합 정책 로드맵 구성
 - 연방·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업무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관 기반 마련, 재정확보와 지원과정 마련, 청소년 역량과 능력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동독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관련 단체 확대, 동독 상황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민주주의 청소년교육 지원, 폭력과 범죄예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함.
- 미국에서 난민 지원을 위한 과정 상에서 난민을 보는 관점과 지원체계를 살펴봄.
 - 난민 청소년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담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함에 따른 미국 사회에 통합되는데 초점을 둠.
 -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관련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청소년이 가진 강점과 욕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구성하여 추진함.

▶ 탈북 청소년의 역량설문조사(탈북 청소년 총 207개 설문)와 심층면접 분석 결과

- 역량설문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역량³⁾을 파악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3) 2016년 탈북 청소년과 2014년, 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있어 수치상 높다/낮다라는 것으로 긍정/부정을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남·북한 청소년간의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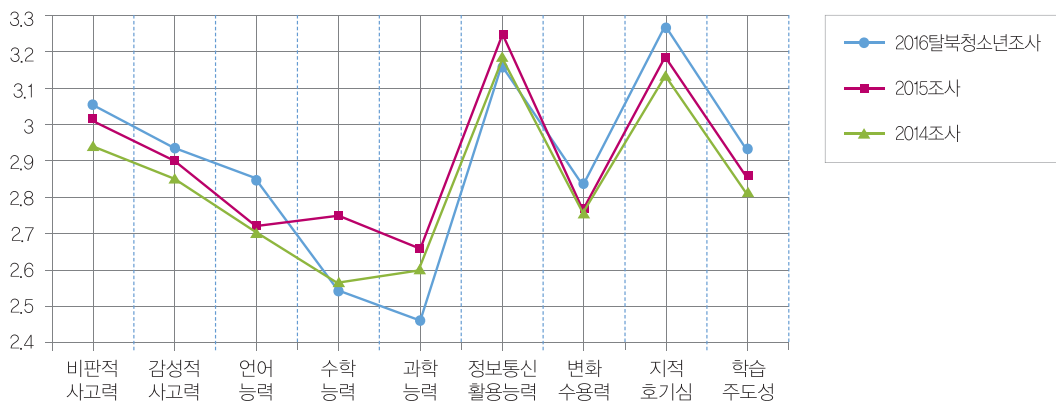
- 생애학습역량에 관해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지적도구 활용 능력에서 급격히 낮은 양상을 보임(그림 1).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1] 생애학습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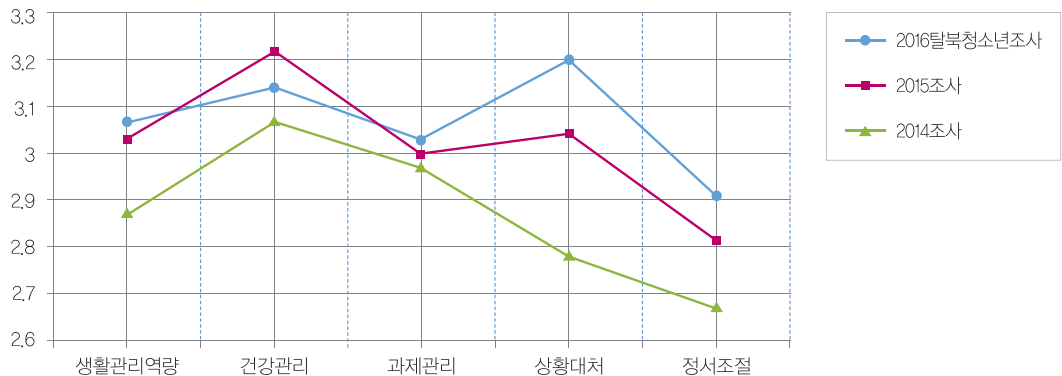
- 생애학습역량 세부항목에서는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수학능력과 과학능력의 남·북한간 경향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그림 2).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2] 생애학습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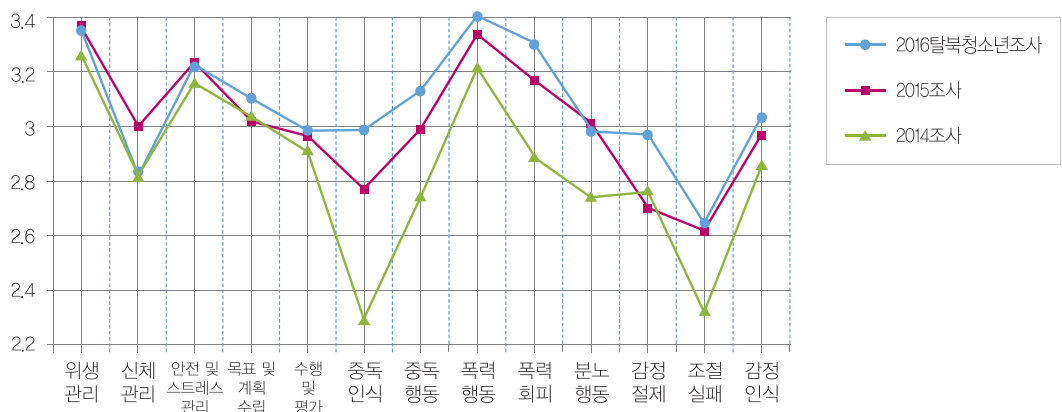
- 생활관리역량에 관해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상황대처 능력이 남한 청소년 조사와는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 3).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3] 생활관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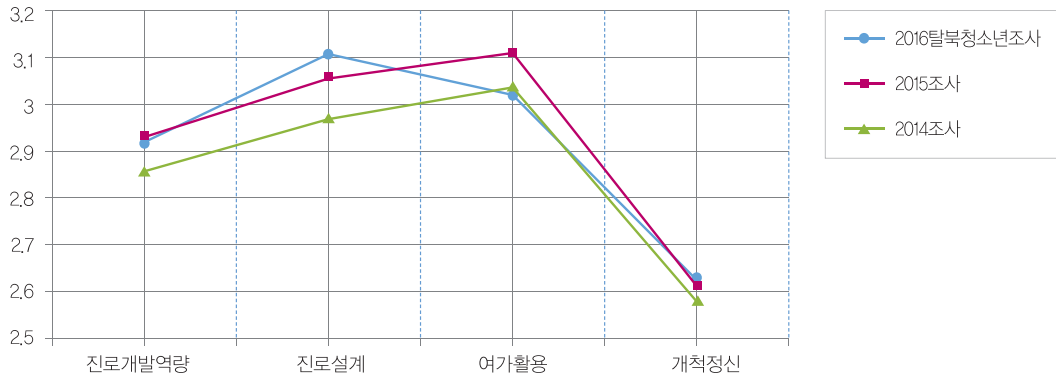
- 생활관리역량 세부항목에서는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중독인식, 감정절제에서 남·북한간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 4).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4] 생활관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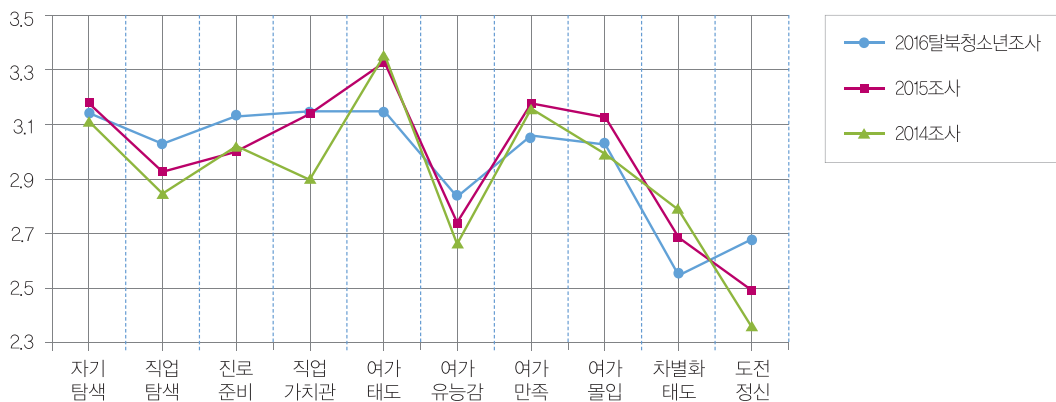
- 진로개발역량에 관해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진로설계와 여가활동이 서로 엇갈린 경향을 보임(그림 5).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5] 진로개발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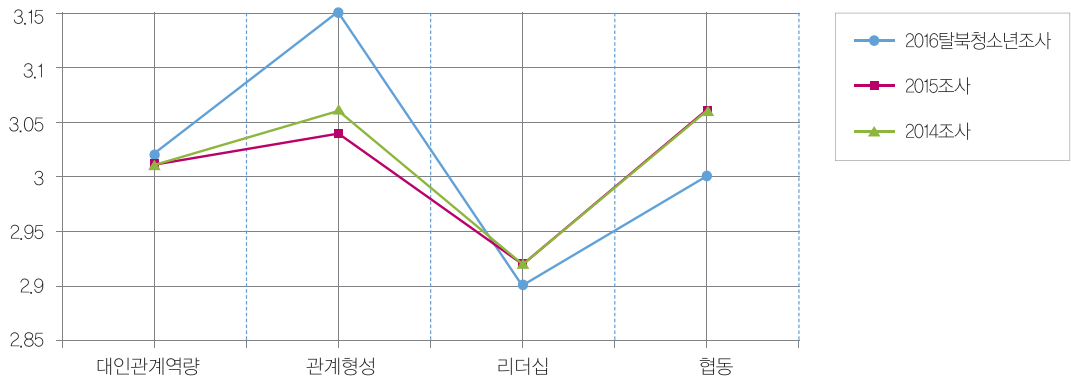
- 진로개발역량 세부항목에서는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직업가치관, 여가태도, 도전정신에서 남·북한간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 6).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6] 진로개발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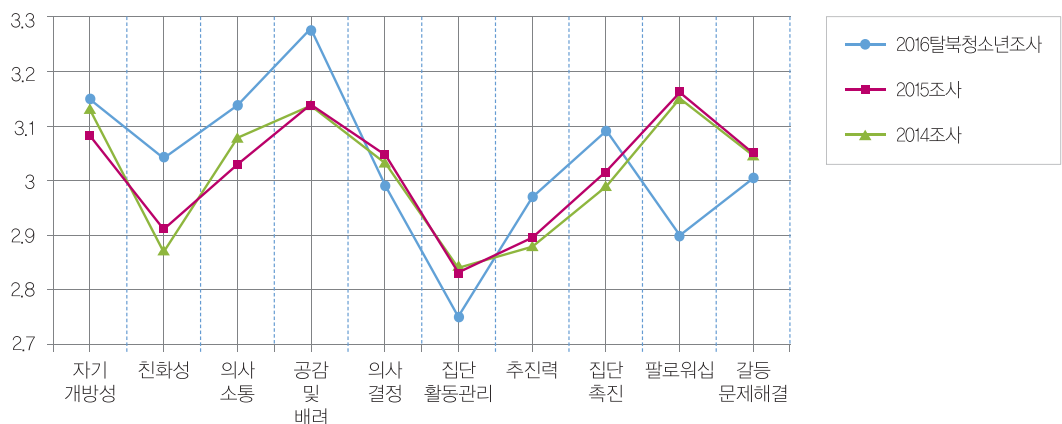
- 대인관계역량에 관해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남한 청소년 조사에서는 역량 점수간 차이와 경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나, 경향은 동일하게 보임(그림 7).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7] 대인관계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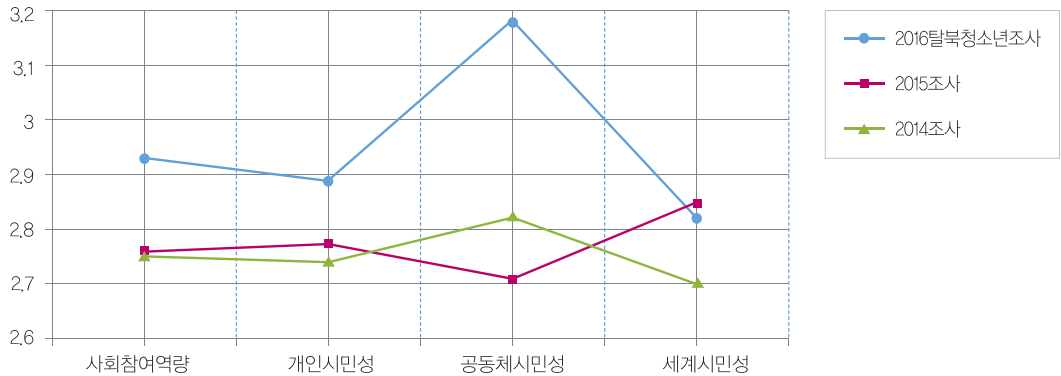
- 대인관계역량 세부항목에서는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팔로워십에서 남·북한간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 8).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8] 대인관계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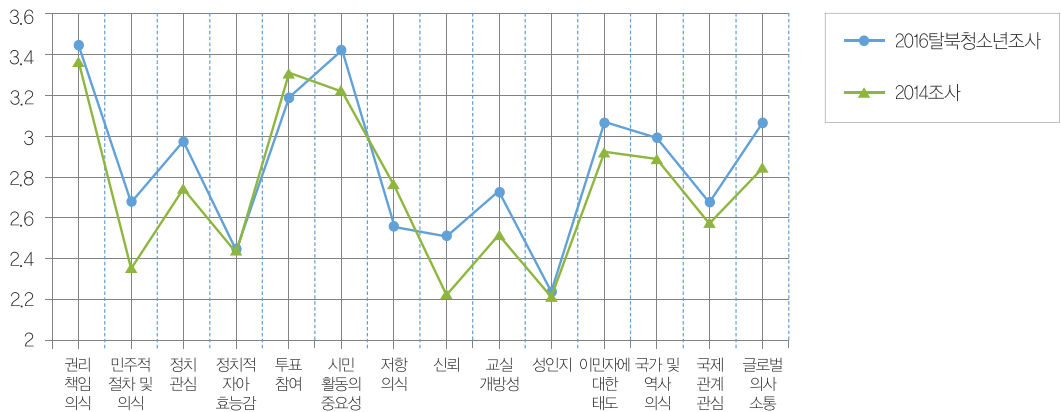
- 사회참여역량에 관해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탈북 청소년 조사에서는 공동체意識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그림 9).



※ 2015년 조사 결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의 결과로서 본 연구조사 문항은 2015년 설문 문항의 축약된 문항이기에 2015년과 2016년을 분석결과의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불가하며, 2016년,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도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9] 사회참여역량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 사회참여역량 세부항목에서는 2014-2015년 남한 청소년 조사와 2016년 탈북 청소년 조사의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시민활동의 중요성에서 남·북한간 다소 다른 경향을 보임(그림 10).



※ 2016년,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 전체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림 10] 사회참여역량 세부항목 2016년/2014년 경향 비교

- 탈북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남한사회의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하고자 애쓰고 있음.
-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신뢰로서 탈북 청소년이 가진 강점은 그들의 역량의 단초로서 각 역량의 영역들을 모두 채워주는 접근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키워주는 접근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역량의 공간(capacity space)안에서 탈북청소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임.

▶ 탈북 청소년의 역량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FGI 분석 결과

-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남한 생활 초기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지적인 호기심, 위기대처관리, 도전정신, 의리, 규범을 준수하는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음.
- 남한 생활 과정 중에 보여진 역량으로는 변화수용력, 위기대처관리, 여가태도, 공감 및 배려, 권위에 대한 동경을 보여줌.
- 지원 체계에서는 심리적 지원 체계의 강화 필요, 입국 초기 개별 사정, 소통 창구의 마련,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 관계개선 지원, 탈북 배경에 대한 인식 개선, 지원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관계, 초기 적응 기간의 충분성 확보 등의 지원을 원함.
- FGI 내용으로는 탈북 청소년 관련 실무자는 대상 유형의 변화에 따른 지원 체계의 변화의 필요성 강조함.
- 생활 과정에서 불안함, 위축, 정체성 혼란의 경험 극복이 필요하고, 동기부여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체계화 마련이 필요함.
- 탈북 대학생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남한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표현함.

3. 정책제언

▶ 탈북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 마련 및 역할분담

- 각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통일부-남북하나재단, 교육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무지개 청소년센터)으로 나눠져 있는 각각의 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여 서비스 및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방안 또는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고 관리·지원하도록 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유지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주 지원대상이 다문화청소년이지만, 학교 밖 탈북 청소년과 대학에 진학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함.

-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의 순환교육

- 현재 탈북 청소년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 일반정규학교 3곳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체류기간, 학습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도록 학교간 순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탈북 청소년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호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개인단위 위주의 가족단위 지원으로 확대

- 지원의 대상이 개인별 지원 형태에서 가족별 지원 형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탈북 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수당 및 아동 수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성년인 탈북 청소년을 가족이 되어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함.

- 초기적응과정 강화

- 탈북 청소년에게는 낮은 시간과 공간 경계사이의 완충지대가 필요함. 따라서 적응수준, 기간 및 장소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두고 적응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탈북 청소년 역량진단도구 개발

- 기존의 진단 도구는 북한 상황에 맞춰 개발된 진단도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나 탈북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역량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함.

-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 탈북 청소년의 국가간, 시대간 이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와 청소년기라고 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가 동시적이며,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함.

▶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 탈북 청소년의 역량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눌러야 했던 점이나 탈북과정에서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과정 등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위축됨이 없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북한에서는 직업이나 진로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계층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진로 교육이 필요함.

-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단기성 멘토링을 제공하기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 가족 지원 강화

- 부모와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고, 보호자는 남한 사회, 청소년은 북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생활방식으로 일정 시간동안 생활했었던 경험 등으로 인해 부모-자녀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교육 등을 제안함.

[표 1] 정책 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내용
1.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1-1) 탈북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 마련 및 역할분담
	1-2)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간 순환교육
	1-3) 보호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2.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1) 개별 지원과 가족 지원의 병행 지원체계
	2-2) 초기적응과정 강화
	2-3) 탈북 청소년 역량진단도구 개발
	2-4) 이중구조 지원체계 마련
3.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1) 정서, 자기주장, 진로관련 지원 강화
	3-2) 또래 멘토링 지원 강화
	3-3) 가족 지원 강화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한국DMZ학회(2016). 탈북청소년 욕구조사(연구보고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연구보고 14-R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연구보고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인출일: 2016년 11월 28일